

## 주요 내용

1. [한국의 사회적 약자 리포트 - 장애인 실태]  
장애인 3명 중 2명, “나는 차별받고 있다!”
2. 최근 조사통계 언론 보도
  - 1) 한국의 음주 운전 실태
  - 2) MZ직장인이 선호하는 상사와 기업
  - 3) 재난재해 위험 인식



# 장애인 3명 중 2명, “나는 차별받고 있다!”

UN이 1981년 ‘세계 장애인의 해’를 선언한 그 해, 우리 정부도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로 기념하기 시작했고, 올해로 벌써 43년째를 맞이하였다. 우리나라 인구의 5% 정도를 차지하며 사회 곳곳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종종 마주하게 되는 대상이 ‘장애인’이다. 누군가의 부모, 자녀, 형제/자매, 친구인 이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우리 정부는 장애인복지법 제31조\*에 근거하여 1990년부터 장애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1차 조사 이후 ‘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를 9번째로 조사, 발표하였다.

이번 조사에서는 인구 고령화와 1인 가구의 증가 현상이 그대로 장애인에도 반영되었는데, 장애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 장애인 비율은 무려 50%에 달했다. 장애인의 고용률은 35%에 불과하며, 10명 중 7명은 자신을 ‘경제적 하층’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장애인의 64%는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 차별이 있다’고 응답했고, 일반 국민의 53%는 ‘장애인 차별이 심각하다’고 응답해 장애인 차별 문제가 여전히 사회 문제임을 보여주었다.

이번 <넘버즈 188호>는 위에서 언급한 데이터를 포함한 ‘장애인의 전반적인 생활 및 건강 실태, 사회·경제적 상태 등’을 다루었다. 더 많은 교회와 사회가 장애인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장애인 사역을 하는 교회에도 유익한 지표로 사용되길 바란다.

\*장애인 복지법 제31조(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복지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장애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 일러두기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비율은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본 리포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각각의 통계마다 그 자료의 출처(생산자)를 의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인용하실 경우, 원자료 출처(생산자)와 목회데이터연구소 자료임을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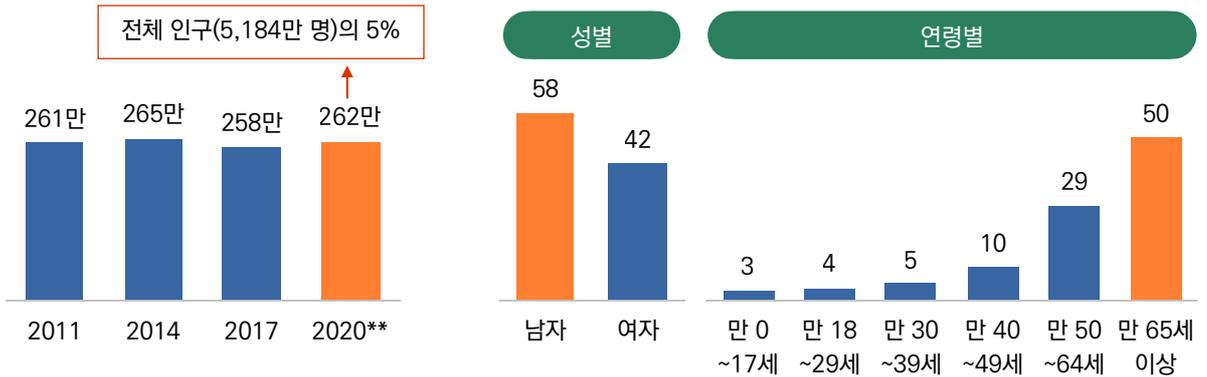


# 01

## [장애인 전반적 실태] 65세 이상 고령 장애인, 우리나라 장애 인구의 절반!

- ▶ 우리나라의 전체 장애인 수는 2020년 기준 262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5%를 차지하고있다.
- ▶ 성·연령별 장애인 비율은 남자가 58%로 여자보다 많았고, 65세 이상 노인 비중이 50%로 매우 높았는데 고령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고령 장애인의 비율도 증가 추세이다. (65세 이상 장애인의 비율 : 2011년 36% → 2020년 50%)

[그림] 전체 장애인 수 (등록 재가 장애인 기준, 명) [그림] 성·연령별 장애인 분포 (등록 재가 장애인 기준, 202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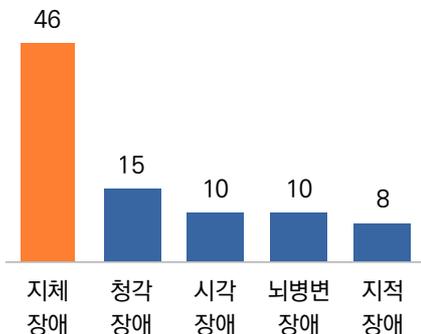
\*자료 출처 :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 발표 보도자료, 2021.04.20.(전국에 거주하는 등록장애인 7,025명, 방문 면접 조사, 2020.10)

\*\*2020년 5월말 현재 등록장애인 수, 2020년 인구는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20~2070년'에서 추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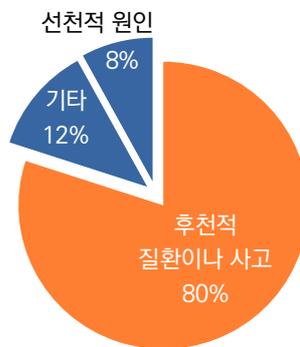
### ◎ 장애 유형별 비중, 지체장애 46%로 가장 많아!

- ▶ 전체 등록 재가 장애인의 장애 유형별 비중을 보면 '지체장애'가 46%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청각장애' 15%, '시각장애' 10%, '뇌병변장애' 10% 등의 순이었다. '지체장애'가 많다는 것은 선천적 원인보다는 후천적 질환이나 사고로 인해 장애를 얻게 된 경우가 많음을 예측할 수 있는데, 실제 본 조사에서도 '장애 원인'의 80%가 후천적 질환이나 사고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 ▶ 장애인 가구 중 1인 가구 비율은 27%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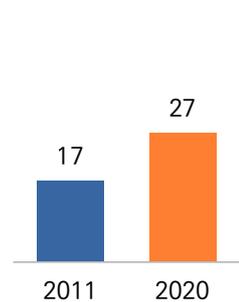
[그림] 장애 유형별 비율 (2020, 등록 재가 장애인 기준, 상위 5위, %)



[그림] 장애 원인



[그림] 장애인 가구 중 1인 가구 비율 (%)



\*자료 출처 :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 발표 보도자료, 2021.04.20.(전국에 거주하는 등록장애인 7,025명, 방문 면접 조사, 2020.10)

#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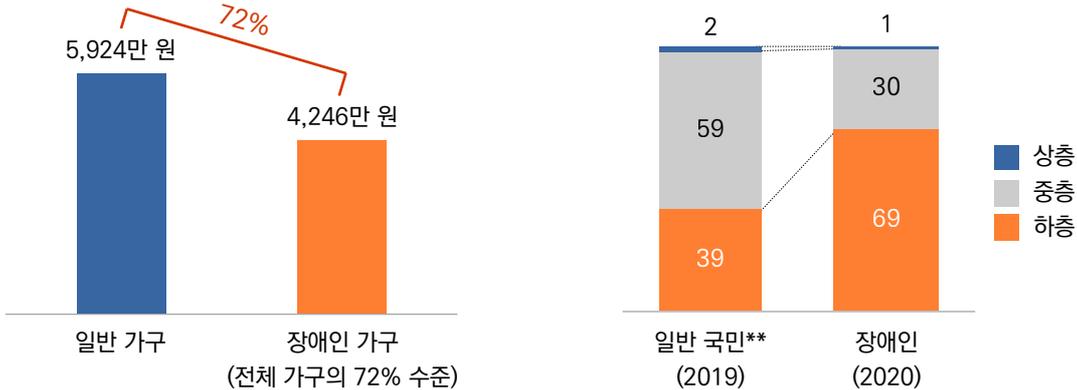
## [장애인의 경제활동]

### 장애인의 계층 인식, 10명 중 7명 '나는 경제적 하층'!

- ▶ 장애인의 경제 상태를 확인하고자 연평균 가구 소득을 물었다. 장애인 가구 소득은 2019년 기준 연평균 4,246만 원으로 일반 가구 소득(5,924만 원)의 72% 수준으로 나타났다.
- ▶ 장애인 스스로가 인식하는 주관적 경제 계층 인식에 대해 물었다. 본인이 '하층'이라고 선택한 비율은 69%로 일반 국민이 '하층'이라고 인식한 비율 39%보다 무려 30%p나 높게 나타났다.

[그림] 연평균 가구 소득 (2019, 일반 가구 vs 장애인 가구)

[그림] 주관적 경제 계층 인식 (일반 국민 vs 장애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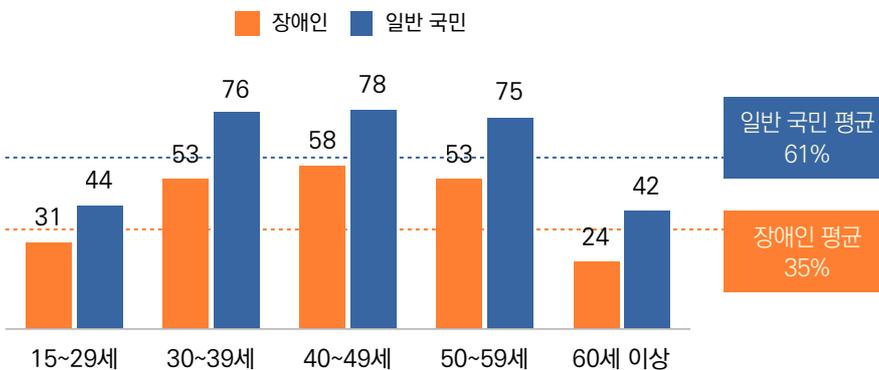
\*자료 출처 :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 발표 보도자료, 2021.04.20. (전국에 거주하는 등록장애인 7,025명, 방문 면접 조사, 2020.10)

\*\*자료 출처 : 통계청, 2019년 사회 조사 결과 보도자료, 2019.11.25

### ◎ 경제활동 가능한 장애인 3명 중 1명만 '취업 중'!

- ▶ 장애인들의 취업상태를 파악하고자 '고용률'\*\*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2019년 기준 장애인 평균 고용률은 35%로 3명 중 1명 정도만 취업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일반 국민의 고용률은 61%보다 크게 떨어지는 수준이다.
- ▶ 연령별로 보면 경제활동이 활발한 30~50대 일반 국민 평균 고용률이 70%대인데 반해 장애인 고용률은 50%대로 상당한 격차를 보였다. 장애인들의 취업이 일반인 대비 쉽지 않음을 보여주는 지표이다.

[그림] 고용률 (2019, 15세 이상, %)



\*자료 출처 : 통계청/보건복지부, 2020 통계로 보는 장애인의 삶, 2020.07.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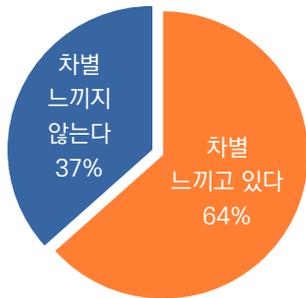
\*\*고용률 = (만 15세 이상 취업자 수 ÷ 만 15세 이상 인구) × 100

#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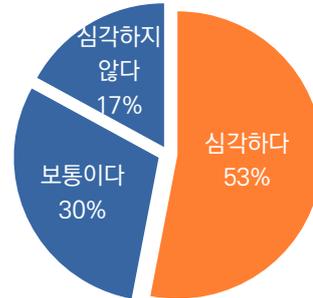
## [장애인 차별에 대한 인식] 장애인, 3명 중 2명 우리 사회에서 차별 느낀다!

- ▶ 장애인 차별에 대한 인식을 장애인과 일반 국민 각각에게 물었다.(질문과 척도에 차이가 있음을 유의) 먼저 장애인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사회)의 장애인 차별이 있는지 질문한 결과, '있다'(매우+약간)고 응답한 비율은 64%로 3명 중 2명 가까이는 차별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 ▶ '장애인 차별의 심각성'에 대해 일반 국민에게 물은 결과, '심각하다'(매우+약간)고 인식하는 비율이 53%로 '심각하지 않다'(전혀+별로, 17%)는 응답보다 3배 정도 높았다. 앞서 언급한 장애인이 차별을 느끼는 경우(64%)보다는 낮지만 일반 국민의 절반 이상은 차별의 심각성을 인식하는 결과이기에 주목된다.

[그림] 장애인 차별에 대한 인식\* (장애인, 4점 척도)



[그림] 장애인 차별 '심각성' 인식\*\* (일반 국민, 5점 척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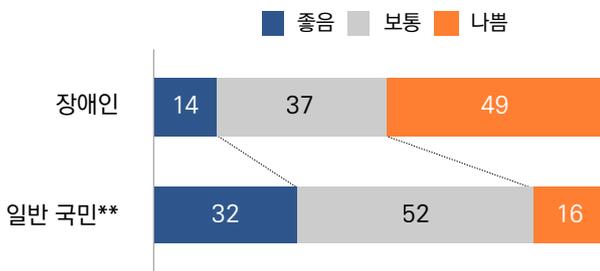
\*자료 출처 :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 발표 보도자료, 2021.04.20.(전국에 거주하는 등록장애인 7,025명, 방문 면접 조사, 2020.10)  
 \*\*자료 출처 : 한국리서치 여론 속의 여론, 장애인 이동권 시위에 대한 인식, 2022.07.06. (전국 만18세 이상 성인남녀 929명, 웹조사, 2022.06.03.-06.06)

#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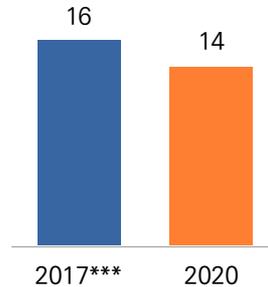
## [장애인의 건강 및 의료이용] 장애인의 주관적 건강상태, 2명 중 1명 '나쁘다'!

- ▶ 장애인 자신의 주관적 건강상태를 물은 결과, ' 좋음'(매우+약간) 14%, '보통' 37%, '나쁨'(매우+약간) 49%였다. ' 좋음'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14% 비율은 일반 국민(' 좋음' 응답률 32%)의 절반에도 못미쳤고 2017년 조사 대비 2%p 하락했다.

[그림] 주관적 건강상태 (장애인 vs 일반 국민, %)



[그림] 주관적 건강상태 ' 좋음'(매우+약간)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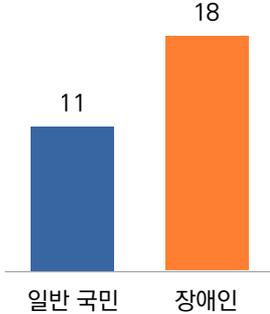


\*자료 출처 :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 발표 보도자료, 2021.04.20.(전국에 거주하는 등록장애인 7,025명, 방문 면접 조사, 2020.10)  
 \*\*자료 출처 :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2019 국민건강통계 (만19세 이상 국민), 2020.12  
 \*\*\* 자료 출처 :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장애인 실태조사  
 Note. 5점 척도임(매우+약간 비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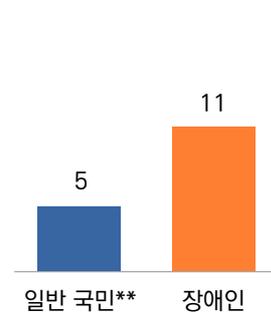
## ◎ 장애인, 일반 국민 대비 '자살 생각' 2배 이상 높아

- ▶ 주관적 건강 인식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 수준도 전체 국민 대비 나쁜 편이었다. 장애인의 '우울감 경험률'은 18%로 일반 국민 11%보다 7%p 높았고, '자살 생각률'은 일반 국민 대비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그림] 우울감 경험률  
(1년간 연속으로 2주 동안, %)



[그림] 자살 생각률  
(최근 1년 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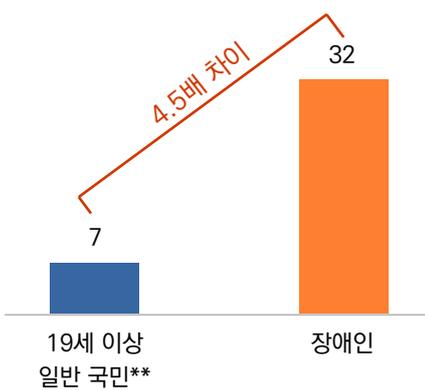
\*자료 출처 :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 발표 보도자료, 2021.04.20.(전국에 거주하는 등록장애인 7,025명, 방문 면접 조사, 2020.10)

\*\*자료 출처 : 국립재활원,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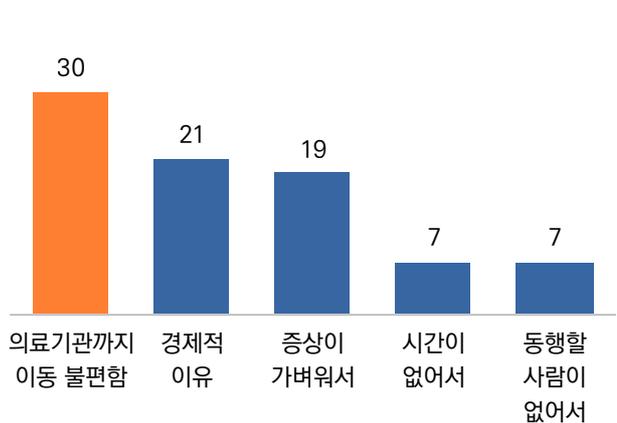
## ◎ '아파도 병원 못 간' 경험, 일반 국민보다 4.5배 더 높다

- ▶ 최근 1년간 본인이 병의원에 가고 싶을 때 가지 못한 경험이 있는지 묻은 결과, 장애인 3명 중 1명(32%)은 '있음'으로 응답했다. 이는 19세 이상 일반 국민의 '최근 1년 동안 치료가 필요하나 받지 못한 비율' (7%)에 비해 무려 4.5배나 높은 수치이다.
- ▶ 한편 본인이 원하는 때 병의원에 가지 못한 이유로는 '의료기관까지 이동이 불편함'이 30%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 '경제적인 이유'가 21%로 '이동의 문제'와 '경제적 문제'가 절반을 차지하며 주요 이유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전장연(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이동권 시위와 결부해서 고민해 볼 수 있는 문제이다.

[그림] 최근 1년간 본인이 병의원에 가고 싶을 때 가지 못한 적 유무 ('있음' 응답률, %)



[그림] 본인이 원하는 때 병의원에 가지 못한 이유 (상위 5위, %)



\*자료 출처 :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 발표 보도자료, 2021.04.20.(전국에 거주하는 등록장애인 7,025명, 방문 면접 조사, 2020.10)

\*\*자료 출처 :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19세 이상 전체 국민의 최근 1년 동안 미충족 의료율),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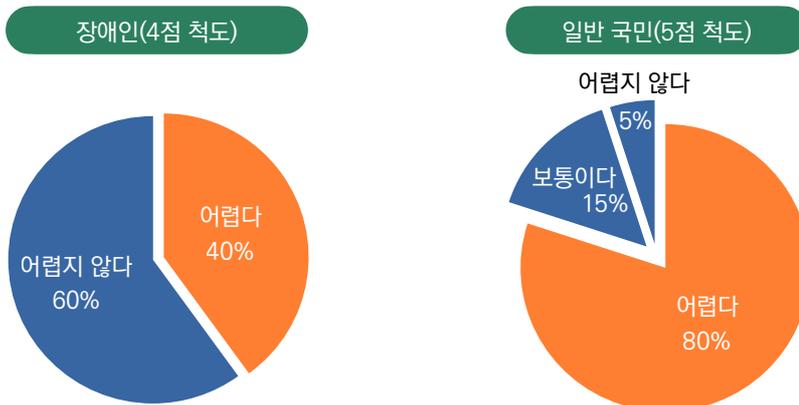
# 05

## [장애인 이동권]

### 장애인의 교통 수단 이용 어려움, 일반 국민이 훨씬 크게 인식

- ▶ 교통수단 이용 시 장애인의 40%는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눈에 띄는 점은 '장애인이 대중교통을 이용해 이동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데에 '일반 국민'의 80%가 '그렇다', 즉 '어렵다'고 응답한 점이다. 장애인이 실제 교통수단 이용 시 어렵다고 응답한 비율보다 2배나 높은 수치이다.

[그림] 교통수단 이용 시 어려움 정도



\*자료 출처 :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 발표 보도자료, 2021.04.20. (전국에 거주하는 등록장애인 7,025명, 방문 면접 조사, 20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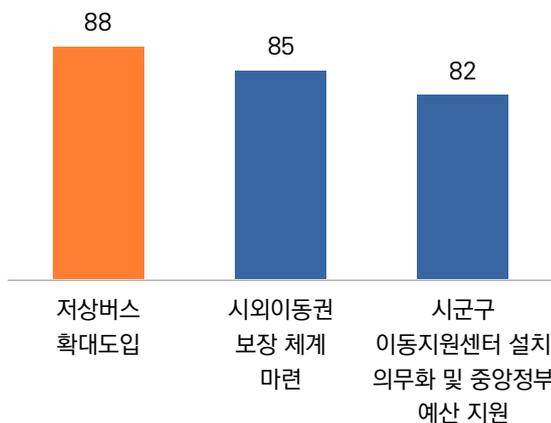
\*\*자료 출처 : 한국리서치 여론 속의 여론, 장애인 이동권 시위에 대한 인식, 2022.07.06. (전국 만18세 이상 성인남녀 929명, 웹조사, 2022.06.03.-06.06)

Note. 장애인 조사(어려움 정도)는 4점 척도, 비장애인 조사는 5점 척도 질문으로 해석에 유의(매우+약간, 별도+전혀 비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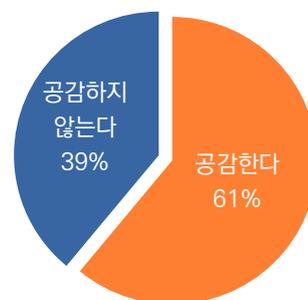
### ◎ 전장연 이동권 개선 요구는 국민 대부분 지지, 시위 공감은 상대적으로 낮아

- ▶ 일반 국민에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가 장애인 이동권 개선을 위해 내건 주요 요구사항을 제시한 후 이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저상버스 확대 도입'(88%), '시외이동권 보장 체계 마련'(85%), '시군구 이동지원센터 설치 의무화 및 중앙정부 예산 지원'(82%) 등 모두 80% 이상의 높은 지지율(매우+지지하는 편)을 보였다. 전장연의 주요 요구사항을 국민들 대부분이 지지하는 셈이다.
- ▶ 다만 '전장연 이동권 시위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 중 '공감한다'(매우+공감하는 편)는 비율이 61%로 '장애인 이동권 개선 관련 주장'에 대한 공감도보다는 20%p 가량 낮았다.

[그림] 전장연의 이동권 개선 관련 요구 사항 지지하는 비율 (%)



[그림] 전장연 이동권 시위 공감 여부\*\*



\*자료 출처 : 한국리서치 여론 속의 여론, 장애인 이동권 시위에 대한 인식, 2022.07.06. (전국 만18세 이상 성인남녀 929명, 웹조사, 2022.06.03.-06.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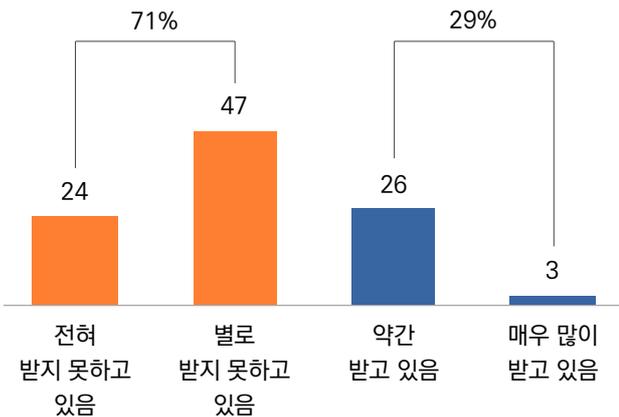
\*\*4점 척도 질문임

## [장애인의 필요와 복지 욕구]

### 장애인의 국가 지원, 10명 중 7명은 충분하지 못하다 인식!

- ▶ 장애인 등록 후 국가나 사회로부터 지원을 얼마나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었다. 그 결과, '받지 못하고 있음'(전혀+별로)이 71%, '받고 있음'(매우+약간)이란 의견이 29%로 나타나 국가나 사회로부터의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장애등록 후 국가나 사회로부터의 지원 인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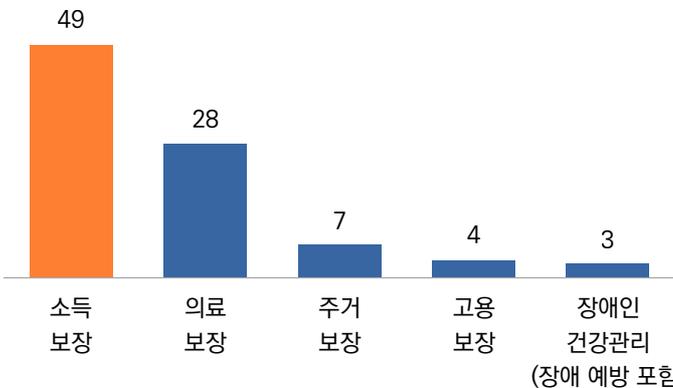


\*자료 출처 :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 발표 보도자료, 2021.04.20.  
(전국에 거주하는 등록장애인 7,025명, 방문 면접 조사, 2020.10)

### ◎ 국가와 사회에 우선적 요구 사항, 소득보장 절반 가까이 꼽아!

- ▶ 장애인이 국가나 사회에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1순위 응답을 기준으로 요구사항을 확인한 결과, '소득 보장'이라는 응답이 49%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다음으로 '의료 보장' 29%, '주거 보장' 7%, '고용 보장' 4% 등의 순이었다.
- ▶ 장애인들의 '소득 보장과 의료 보장에 대한 욕구'를 해소해 줄 수 있는 '고용시장 확충'과 '사회지원 네트워크 구축', '의료비 지원 및 의료시설로의 이동 용이 방안 마련(예: 가가호호 찾아가는 의료케어, 원격 진료 확대)' 등 국가와 지역사회의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그림] 사회 및 국가에 대한 요구사항 (1순위, 상위 5위, %)



\*자료 출처 :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 발표 보도자료, 2021.04.20.  
(전국에 거주하는 등록장애인 7,025명, 방문 면접 조사, 2020.10)

언론 보도를 보다 보면 종종 장애인들이 장애인 이동권을 요구하는 지하철 시위를 벌이는데 이 과정에서 열차 운행에 지연이 발생한다는 뉴스가 나온다. 출퇴근 시간에 지하철이 막히면 시민들은 제때에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하는 불편을 겪게 되는 것이 당연하다. 그래서 사회적 비난이 일어나기도 한다. 하지만 국민들은 이 문제에 대해 비교적 공감하며 수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넘버즈 분석 결과를 보면 장애인 이동권과 관련된 그들의 구체적 요구에는 80% 이상이 지지하고, 시위에 대해서는 61%가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 보도와 달리 국민들은 이들의 이동권 시위에 비교적 수용적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시위를 하면 시민들이 불편하다는 것을 당사자인 장애인들이라고 해서 모를 리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위를 벌이는 이유를, '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 '전장연'의 상임대표인 박경석씨는 '사람들이 전장연 시위에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는 것보다는 오해라도 쌓이면 좋겠다. 오해가 쌓이고 왜곡되는 것들은 또 한 번, 또 어떤 계기가 오면 한 번에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우리 사회가 장애인이 생활하는데 불편한 현실, 장애인이 느끼는 차별을 개선하는 데 관심이 없다고 느끼기 때문에 장애인들에게 관심을 보여 달라고 택한 구애 방법이 지하철 시위인 셈이다.

장애인 문제에 관심을 갖는 데에는 사회 구성원이 개인적으로 장애인을 공허하게 여기는 마음, 즉 측은지심이 필요하다. 하지만 장애인 문제를 개인의 마음에 의존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장애인 문제를 접근할 때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가치관이 중요한데 시대마다, 나라마다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시각에는 차이가 있다.

고대 그리스 조각상을 보면 군살 하나 없는 근육질의 남성상이 많은데 신체 건강한 남성을 이상적 인간상으로 여기는 고대 그리스 사람들의 시각을 대변하고 있다. 이들에게 장애인은 결함이 많고 사회에 도움이 되지 않는 존재로 여겨졌다. 장애인들은 사회에서 소외되고 차별받는 대상이 되었다. 그리스 시민권

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도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정치적인 권리를 가지지 못했다.

나치는 독일인을 우생학적으로 우성인 인간으로 구성하기 위해서 유대인을 비롯한 다른 인종·종교·성적 지향성을 가진 사람들을 사회로부터 배제했다. 장애인을 '생산성이 없는' 인간으로 간주하고, '유전적으로 부적절한 존재'로 보았다. 1939년 9월, '이클테넨' 작전을 통해 70,000명 이상의 장애인을 처형했으며, 1940년 10월 "M-호스피탈 작전"을 통해 프랑스에 있는 정신병원에서 약 5,000명 이상의 환자들을 살해했다. 또한, 장애인들을 수용소나 공장의 강제노동에 동원하였다. 장애인들의 유전적 대물림을 방지하기 위하여 생식력을 차단하는 등 인간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짓을 자행하였다.

장애인에 대한 위와 같은 시각, 즉 사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은 현대에도 여전히 존재한다. 현대 사회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줄어들고 그들을 위한 복지 혜택도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우리 사회가 적자생존의 사회, 효율성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사회로 남아 있다면 장애인은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결함이 있는 존재일 수밖에 없다. 이런 인식은 장애인을 우리 사회의 동등한 이웃으로 받아들이는 데 방해가 될 것이다.

교회는 국가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 도움이 턱없이 부족한 곳에 관심을 갖고 그 빈 곳을 채우는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해야 한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가 적자생존의 정글과 같은 사회가 아니라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 공동체 사회를 지향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내가 불편하고 때로는 손해가 되더라도 이를 기꺼이 감수하는 세계관, 가치관을 갖도록 우리 사회를 일깨우는 역할을 교회가 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회 안에서, 그리고 교회 밖을 향해, 장애인을 배제하고 그들을 나와 똑같은 이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현실에 강한 질타를 하며, 함께 서로를 세우며 나아가는 사회가 되도록 하는 예언자적 역할이 교회에 요구된다.

- 1.[한국의 음주 운전 실태]
- 2.[MZ직장인이 선호하는 상사와 기업]
- 3.[재난재해 위험 인식]



## 음주 운전, 65세 이상 고령층이 성인 평균보다 2배 높아!

- ▶ 최근 9살 소년과 인도를 덮친 음주 운전자에 치여 목숨을 잃은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 음주 운전 피해 사고가 비교적 자주 보도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음주 운전 현황과 실태를 알아봤다. 음주 운전 적발은 2017년부터 2021년 사이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는데 국민 인식 개선, 음주 운전에 대한 도로교통법 기준과 처벌 강화\*\*(2019.6.25. 시행), 코로나19로 인한 모임 감소 등의 영향으로 보인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거리 두기가 완화된 2022년부터 다시 증가하고 있다.
- ▶ 운전자들의 음주 운전 경험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해 2021년 3.3%로 4년 전 대비 절반 이하 수준으로 낮아졌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자 음주 경험률은 6.2%로 성인 평균 3.3%의 두 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주목된다.

[그림] 음주 운전 적발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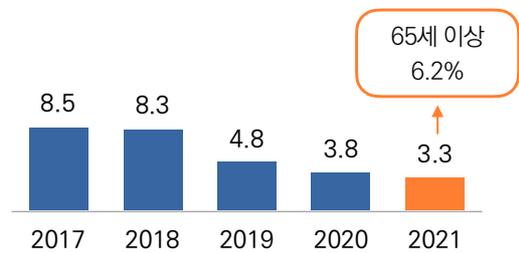


\*자료 출처 : 경찰청, 경찰통계자료 참조 (<https://www.police.go.kr/www/open/public/public0205.jsp>)

\*\*처벌 기준 혈중 알코올 농도 하향 조정 및 벌금, 징역 기준 강화

[그림] 음주 운전 경험률

(19세 이상 성인, 최근 1년 간 음주 운전 경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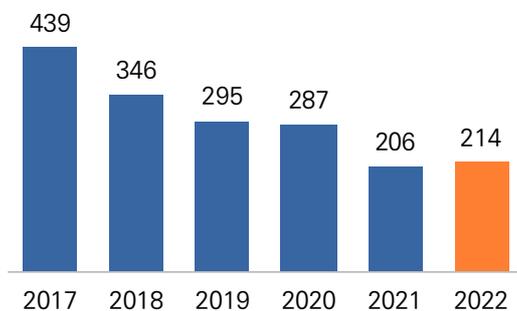


\*자료 출처 : 질병관리청, 2021 국민건강통계, 2022.12.

## ◎ 2022년 음주 운전으로 인한 교통 사망자, 이들에 1명 이상!

- ▶ 음주 운전으로 인한 교통 사망자도 음주 운전 적발과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2022년 다시 증가했으며, 2022년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망자는 214명으로 이들에 1명 이상이 된다(0.58명/1일).
- ▶ 한국의 음주 운전 사망사고 형량은 최대 무기징역이지만 실제로는 대법원 양형위원회 권고 기본 형량에 따라 최대 5년 6개월을 넘지 않아 주요국 대비 처벌이 약한 편이다.

[그림] 음주 운전 교통 사망자 (명)



\*자료 출처 : 출처 : 경찰청, 경찰통계자료 참조 (<https://www.police.go.kr/www/open/public/public0205.js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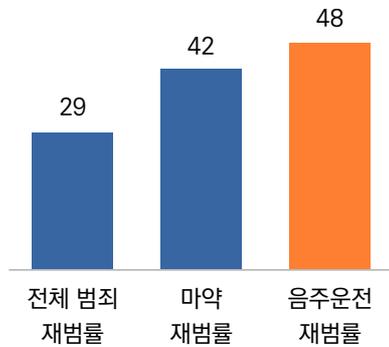
[표] 세계 주요 국가의 음주운전 사망사고 형량

국가	형량
한국	3년~무기징역 (대법원 양형위원회 권고 기본 형량 : 최대 5.5년)
일본	1~30년 (동승자, 술 제공자까지 처벌)
미국 워싱턴 주	최고 무기징역
미국 뉴욕 주	1~25년
영국	1년 6개월~14년

## ◎ 음주 운전 재범률, 마약 재범률보다 높아!

- ▶ 흔히 끊을 수 없는 것을 비유할 때 ‘마약’이란 단어를 쓴다. 2021년 기준 음주 운전의 재범율은 놀랍게도 마약 재범률(42%)보다 높은 48%로 나타났다. 음주 운전자의 절반 정도가 2번 이상 음주 운전을 하는 셈이다. 음주 운전 처벌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소주 1잔만 마셔도 나올 수 있는 수치이다.

[그림] 재범률 (2021, 동종재범, %)



\*자료 출처 : 통계청, 재범자 재범기간 및 종류, 2022.12.20

[표] 음주운전 재범 도로교통법 벌칙 개정안\* (2019.6.25.시행)

음주운전 적발 횟수	기존	개정
1회	(없음)	징역 1년 이하, 벌금 500만 원 이하
2회	(없음)	징역 2~5년, 벌금 1~2천만 원
3회 이상	징역 1~3년, 벌금 500~1,000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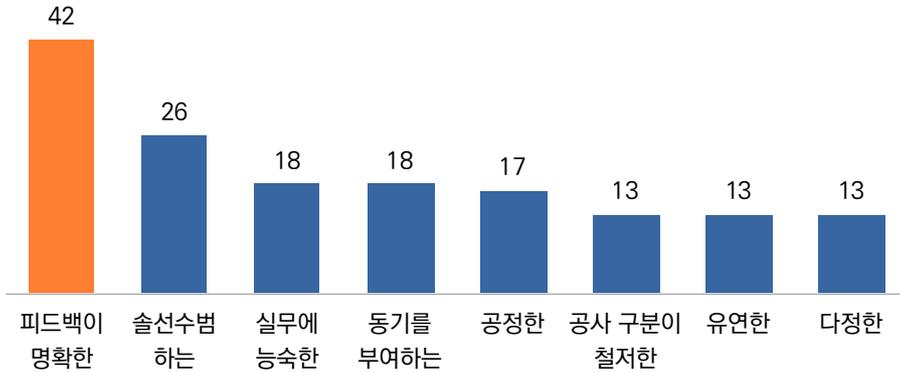
\*혈중알코올농도 0.03~0.05% 기준



## MZ직장인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직장 상사, '피드백이 명확한 상사'!

- ▶ MZ세대 직장인이 꿈은 이상적인 상사 유형 1위는 '피드백이 명확한 상사(42%)'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다음으로 '솔선수범하는(26%)', '실무에 능숙한(18%)', '동기를 부여하는(18%)' 순이었다.

[그림] 이상적인 상사 (MZ세대 직장인, 복수응답, 상위 8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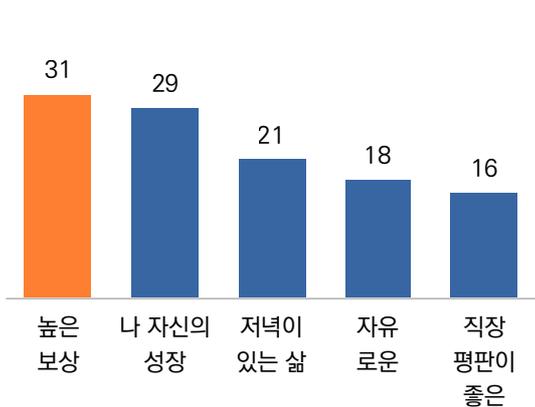


\*자료 출처 : 집코리아&알바몬, '선호하는 직장 상사 및 기업 문화', 2023.4.4.(MZ세대 직장인 1,114명)  
(<https://www.chosun.com/economy/industry-company/2023/04/04/HRBZ6BJ7HRANVLTNK2HSAT5TSQ/>)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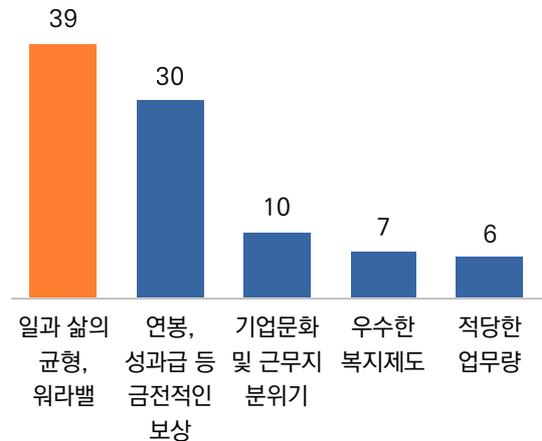
## ◎ MZ세대에게 좋은 직장이란? '워라밸이 있는 직장'!

- ▶ MZ세대 직장인들이 추구하는 직장 생활의 주요 키워드를 보면 '나 자신'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중요한 직장 생활 키워드 1위는 '높은 보상(31%)'이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나 자신의 성장(29%)'이 2위에 올랐다. 그다음으로 '저녁이 있는 삶(21%)', '자유로운(18%)' 순이었다.
- ▶ 좋은 직장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으로는 '일과 삶의 균형, 워라밸'이 39%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 '연봉, 성과급 등 금전적인 보상(30%)'으로 나타나 금전보다 개인의 삶에 더 중점을 두고 있었다.

[그림] 중요한 직장생활 키워드 (MZ세대 직장인, 복수응답, 상위 5위, %)



[그림] 좋은 직장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 (MZ세대 직장인, 복수응답, 상위 5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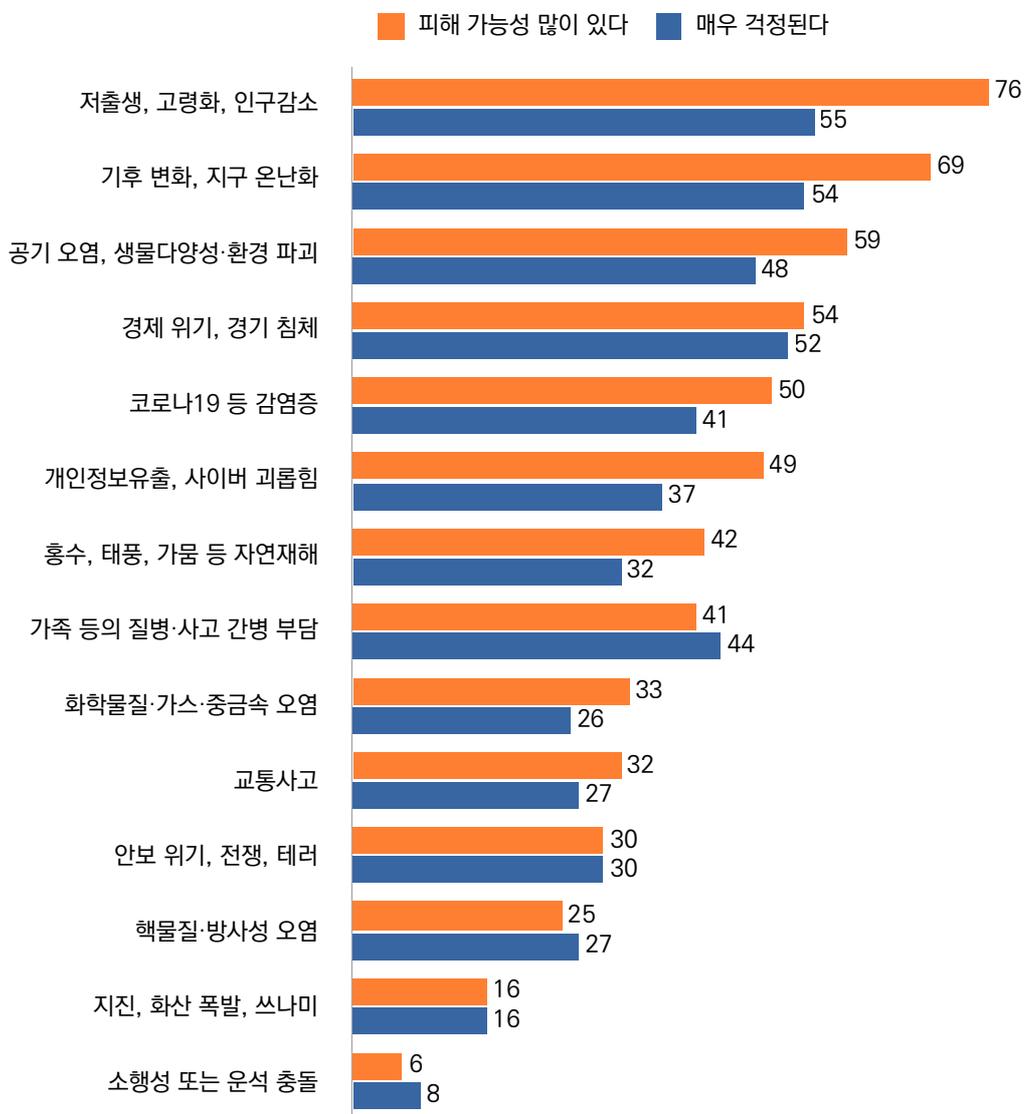
\*자료 출처 : 집코리아&알바몬, '선호하는 직장 상사 및 기업 문화', 2023.4.4.(MZ세대 직장인 1,114명)  
(<https://www.chosun.com/economy/industry-company/2023/04/04/HRBZ6BJ7HRANVLTNK2HSAT5TSQ/>)



## 인류에게 피해를 주는 가장 큰 재난, ‘저출생, 고령화, 인구 감소’!

- ▶ 인류는 다양한 재난과 재해의 위험 속에서 살고 있다. 한국갤럽에서 각종 재난 재해를 14개 유형으로 분류하여 한국인의 위험 인식 정도를 조사했는데, 그 결과, 현시점 우리에게 가장 큰 위협은 ‘저출생·고령화·인구감소’이며, ‘기후 변화’, ‘환경 문제’, ‘경제 위기’도 그에 버금가는 위협으로 꼽혔고, ‘지진·화산 폭발’과 ‘소행성·운석 충돌’은 발생 가능성과 우려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됐다.
- ▶ ‘자신이 피해를 입을까 봐 매우 걱정된다’를 묻은 피해 우려 정도는 피해 가능성 인식보다는 전반적으로 낮았는데 그중 ‘저출생·고령화’, ‘기후 변화’, ‘경제 위기’ 세 가지 유형이 각각 50%대로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

[그림] 재난재해 위험 인식\*\* (%)



\*자료 출처: 한국갤럽, '각종 재난재해 위험 인식', 2023.01.12. (전국 만 19~79세 1,035명, 모바일 조사, 2022.8.23.~31.)

\*\*4점 척도로 많이, 매우의 비율임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 정치

[데일리 오피니언\(한국갤럽\) 제538호 \(2023년 4월 2주\)](#)

- 부동산 정책 평가, 집값·임대로 전망, 거래 추가 활성화 필요 등

[전국지표조사\(주요 4개 조사회사\) 리포트 제94호 \(2023년 4월 2주\)](#)

- 국정운영 평가, 국정운영 긍/부정 평가 이유, 국정운영 신뢰도, 정당지지도 등

["연설 한번 하시라"말에 고민한다...與 흔든 전광훈 뒤 이 숫자](#)

중앙일보\_2023.04.12.

◎ 사회 일반

[지방서 사는 사람 절반 "우리 지역 20년 내 사라질 것"](#)

한국일보\_2023.04.12.

[국민 10명 중 8명 "챗GPT, 앞으로 우리 삶에 큰 영향 미칠 것"](#)

동아일보\_2023.04.12.

[들싱남들 재혼 꺼리는 이유...41%가 "이혼으로 재산 반토막"](#)

중앙일보\_2023.04.12.

[아직도 입양아동 10명 중 4명은 해외로...국내 입양 활성화한다](#)

조선비즈\_2023.04.13.

◎ 청년 / 청소년

[여학생 정신건강 '빨간불' 3명 중 1명 '절망감'... 신체활동·정신건강 성별 격차 여전](#)

여성신문\_2023.04.14.

[3학년 때부터 달라졌다...자부심 높던 지방대 학생 변심의 이유](#)

중앙일보\_2023.04.11.

◎ 기업 / 경제

[직장인 40% "점심값 8000원 이상 쓴다"...7000원대 확 줄어](#)

매일경제\_2023.04.14.

[주식하는 직장인 65% "업무 중 '주식 차트' 본다"](#)

동아일보\_2023.04.12.

["피병으로 보일까봐"...직장인 절반, 아파도 참고 출근한다](#)

중앙일보\_2023.04.12.

["아이 등원 땀 업무 중단"...'일→육아→일' 하루 2번 출근하는 회사](#)

중앙일보\_2023.04.16.

[韓 49% "美기업 하면 애플"... 美 58% "떠오르는 韓기업 없어"](#)

동아일보\_2023.04.15.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한국 부자들이 꿈은 향후 ‘투자 대상’은 이것!](#)

주간동아\_2023.04.16.

◎ **건강**

[공황장애 환자 4년새 44.5% 급증...스트레스 심한 40대 최다](#)

연합뉴스\_2023.04.13.

[머리 빠지는데 남녀·중장년 구분 없다...10명중 3명은 탈모 경험](#)

조선일보\_2023.04.11.

◎ **국제**

[미국인 10명 중 4명 “중국은 적”...악화되는 미국 내 반중 여론](#)

매일경제\_2023.04.14.

◎ **기독교 / 종교**

[한국인, 종교적 성향 열다](#)

더미션(국민일보)\_2023.04.13.

[성경과 멀어진 청년들 ... “일방향 설교보단 참여 유도를”](#)

아이굿뉴스(기독교연합신문)\_2023.04.11.

[미국인 66% “예수 부활에 대한 성경 기록은 정확”](#)

크리스천투데이\_2023.04.10.

[“지난해 57개 언어 사용자 1억명이 모국어 성경 접해”](#)

더미션(국민일보)\_2023.04.05.

### | 후원 교회 |

강남중앙침례교회, 거룩한빛광성교회, 경동교회, 고현교회, 과천교회, 광주다일교회, 꿈마을엘림교회, 꿈의교회, 노량진교회, 내일교회, 다운교회, 당진동일교회, 더세움교회, 대구칠곡교회, 대덕교회, 대전선창교회, 도원동교회, 동부광성교회, 동행한빛교회, 둔산성광교회, 마산성산교회, 만나교회, 맑은샘교회, 명성제일교회, 문호교회, 미디어에터교회, 밀양남부교회, 부천명성교회, 빛과소금교회, 사랑감리교회, 산서울교회, 산성교회, 삼천포교회, 상도중앙교회, 상암교회, 서대문교회, 서영교회, 서울동성교회, 서울드림교회, 서울서교회, 서울서문교회, 서울은천교회, 서울중앙교회(종로), 서울중앙교회(영등포), 서현교회, 성락성결교회, 소망교회, 송내교회, 송학대교회, 수원중앙침례교회, 순복음춘천교회, 신일교회, 새에덴교회, 세광교회, 아현장로교회, 안산제일교회, 안양감리교회, 에덴교회, 여의도순복음교회, 연동교회, 영락교회, 예은교회, 예하교회, 예향교회, 오류동성결교회, 오륜교회, 올리브교회, 우정교회, 울림교회, 원동교회, 은광장로교회, 은평교회, 이룸교회, 일동동부교회, 일산광림교회, 일산세광교회, 잠실교회, 장유대성교회, 정음성광교회, 제주연동서부교회, 조양중앙교회, 주안장로교회, 지구촌교회, 진주삼일교회, 진주성결교회, 충신교회, 창동염광교회, 토평교회, 포항대도교회, 포항제일교회, 하나마을교회, 한국중앙교회, 한소망교회, 화전중앙교회, 희성교회 (가나다 순)

### | 후원 기관 |

고려신학대학원, 기독교대한감리회 삼남연회,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 기아대책, 마을학연구소, AI방과후교회학교, (사)교회갱신협의회, (사)아시아미션, 서대문ESF, 서울노회아동부연합회(예장통합), (사)새길과새일, 아드폰테스(예장 통합 목회자 모임), 알파코리아, 지앤컴리서치, 한국교회탐구센터, (사)한국그리스도사상연구소, 한목회, 한빛누리, 한일연합선교회, CBMC 광주지역포럼, CCC사역연구소, GoodTV (가나다 순)

### | 후원 기업 |

(주)가인저캠퍼스, (주)그랑블루, (주)마뜨, 메가리서치, 스페이스허브, (주)시스코프, (주)웨슬리퀘스트, (주)자연인(아이소이), (주)참든건강과학, (주)참물류, (주)하츠/(주)벽산 (가나다 순)

### | 후원 명단 안내 |

후원자 명단(개인)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링크 클릭](#)

### | 후원 방법 |

본 연구소는 주간리포트를 제작하여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에 무료로 제공하며, 100% 후원을 통해 운영됩니다. 이 사역에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소 후원은 공익재단을 통해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1. 기부금 영수증 발행 후원 계좌 및 안내 → [링크 클릭](#)

- 계좌 : 국민은행 343601-04-128846 (재)한빛누리(목회데이터연구소)

2.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필요하지 않으시다면 직접 계좌 송금으로 후원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계좌 안내 : 하나은행 203-910046-18604(목회데이터연구소)



### | 신규 후원 |

주사랑교회(담임목사 최정도)

(매월 신규후원자는 당일 마지막 주에 취합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드립니다.)

후원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 미션 |

우리는 세상과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슈, 사고방식, 그리고 트렌드를 한국 교회 목회자와 리더십에게 알리는 '정치 중립/가치 중립의 공정한 팩트 탱크'로서, 사회 여론 조사, 공공 통계 등 데이터 기반의 통계 자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교회-사회의 대화와 소통을 풍요롭게 하고 더욱 견고하고 온전한 의사 결정을 위해 '사실'에 입각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 | 협력기관 |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재)한빛누리, 한국교회탐구센터, (주)기독교텔레비전(CTS)

## | 섬기는 이들 |

김지철 목사 | 운영위원장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이사장)

류영모 목사 | 후원이사회 회장(한소망교회 담임목사, 전 한교총 대표회장)

신원하 교수 | 연구자문위원장(고려신학대학원 전 원장)

## | 만든 이들 |

지용근 | 목회데이터연구소 대 표 |

김진양 | 목회데이터연구소 부대표 |

김기혁, 민선영, 유영민, 송예슬, 김찬술, 한미경

## | MOU 기관 |

(사)교회갱신협의회, 교회성장연구소,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교통일지도자훈련센터(송실대학교), (재)기독교선교햇불재단, 기아대책, (사)더조은세상,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교육원(고신),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교단총회, 마크로밀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문화선교연구원,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사)새길과새일, 아드폰테스, 아크연구소, (사)아시안미션, 크리스찬타임스, (재)하나복네트워크, 한국IFCJ가정의힘, 한국교회 선교연구소, (사)한국교회지도자센터(한지터),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한목협), 한일연합선교회

미주지역 : MiCA(Missional Church Alliance), LA AEU미성대